

軒)‘용청강운(龍淸江韻)’ 등의 현판이 걸려 있다. 해월의 유품으로 보이는 서각·물통·화살·순가락·제기·청동등잔과 용도를 알 수 없는 녹각(鹿角) 3점 등의 유물과 교지 수십 점이 있으며, 『천군기(天君記)』 등의 서적과 한호(韓濩) 글씨라는 병풍 1점이 있는데 낙관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사당은 정자 뒤편에 있으며, 정면 3칸×측면 1.5칸으로 홀처마 맞배기와집이며, 해월 황여일의 신위를 모시고 있어서 ‘불천묘’로 불리고 있다.

황여일은 본관은 평해(平海), 자는 회원(會元), 호는 해월헌(海月軒)·매월헌(梅月軒)이다. 경상도 평해 출신이다. 황세충(黃世忠)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황연(黃璉)이며, 아버지는 유학(幼學) 황응징(黃應澄)이다. 1576년(선조 9)에 진사가 되고 1585년 개종계별시문과(改宗系別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588년 검열이 되었는데, 하번사관(下番史官)임에도 불구하고 출입하였다 하여 파직되었다. 1594년 형조정랑이 되고 곧 도원수 권율(權慄)의 종사관으로 내려갔는데, 얼마 뒤 도원수의 허락을 받고 일시 귀가하여 도원수와 함께 추고(推考)당하였다. 1598년 사서에 이어 장령이 되고, 이듬해 장악원정을 역임하였다. 1601년 예천군수가 되고 1606년 전적을 역임, 1611년(광해군 3) 길주목사, 1617년 동래진병마첨절제사가 되었다.

평해의 명계서원(明溪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는 『조천록(朝天錄)』과 『해월집(海月集)』 14권 7책이 있다.

제2절 문화 공간 : 누정

울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수많은 누정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누정조」에서는 누정을 누(樓)·정(亭)·당(堂)·대(臺)·각(閣)·헌(軒)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흔히 누각과 정자를 총칭하는 누정은 누관(樓觀)이라고도 하며, 대개 높은 언덕이나 돌 혹은 흙으로 쌓아올린 대 위에 세우기 때문에 대각(臺閣) 또는 누대(樓臺)라고도 한다.

따라서 누정은 자연에서 유람과 휴식을 목적으로 가옥 외에 특별히 지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방이 없이 마루만 있고, 사방이 두루 보이도록 막힘이 없이 탁 트였으며,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건립한 것이 누정의 특징이다. 그러나 누정 중에는 한두 칸 정도의 방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누정의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서당이나 서재의 기능을 하는 방을 둔 누정도 생겨나게 되었다.

빠어난 경치의 산세를 끼고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울진 지역에는 많은 누정이 분포되어

있다. 울진 지역에 현존하는 누정은 정자 15채, 누각 1채이다. 정자는 망양정(望洋亭), 월송정(越松亭), 일우정(一遇亭), 연호정(蓮湖亭), 남계정(南溪亭), 모원정(慕遠亭), 백헌정(白軒亭), 환월정(喚月亭), 수월정(水月亭), 하암정(霞岩亭), 호연정(浩然亭), 노헌정(魯軒亭), 호계정(虎溪亭), 영모정(永慕亭), 목란정(木蘭亭)이 현존한다. 완재정(宛在亭), 청암정(靑岩亭), 한송정(寒松亭), 취운정(翠雲亭), 관운정(觀濶亭), 선연정(仙淵亭), 함벽정(涵碧亭), 봉루정(鳳樓亭), 송학정(松鶴亭), 연희정(延曦亭), 독송정(獨松亭), 망사정(望槎亭), 사친정(思親亭), 영귀정(詠歸亭), 소정(素亭)은 그 이름과 터만 전해질 뿐이다.

누각은 삼조어비각만이 현존하고, 몽선각(夢仙閣), 인빈각(寅賓閣), 청향각(清香閣), 태고루(太古樓), 망월루(望月樓), 풍월루(風月樓), 오월루(梧月樓), 망북루(望北樓), 망학루(望鶴樓)는 소실되어 이름만 전해지고 있다. 울진 지역의 대표적 누정으로서는 월송정, 연호정, 일우정, 망양정, 삼조어비각 등을 들 수 있다. 관동팔경의 하나로서 평해읍 월송리에 있는 월송정은 고려시대에 월송사 부근에 창건되었던 것을 조선 중기 연산군 때의 관찰사 박원종(朴元宗)이 중건하였다. 이후 오랜 세월 퇴락한 것을 다시 중건하였으나 구한말에 일본군이 철거해버렸다.

1969년 재일교포들이 다시 신축하였으나 옛 모습과 같지 않아서 해체하고, 1980년 정면 5칸, 측면 3칸, 2층 건물로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월송정과 함께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은 근남면 산포리에 있다. 고려시대에는 기성면 망양리 현종산 기슭에 있었는데, 1849년(철종 9)에 현재의 장소로 이축됐다. 1860년에 중건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울진읍 호월리에 있는 일우정은 전방으로 남대천의 맑은 물이 흐르고, 서쪽에는 단풍산, 동쪽에는 들판 위로 산성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울진읍 연지리에 있는 연호정은 1815년(순조 15) 창건되어 향원정이라 하였으나, 오랜 세월 퇴락하여 무너진 것을 1922년 군수 이기원(李起遠)이 구 동헌의 객사를 이축하고 연호정이라 개칭하였다. 연호의 주변은 약 2km로 연꽃이 만발해 있고, 주위가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절경을 이루고 있다.

매화면 금매리 몽천동에 있는 삼조어비각은 1794년(정조 18)에 감사 윤사국(尹師國)이 몽천서원 옆에 건립하였다. 수백 년이 흐르면서 여러 번 보수되었으나 오랜 세월로 퇴락되어 있던 것을 1978년에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삼조어비각에는 숙종과 정조의 비지(批旨) 등 다수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산수 좋은 곳에 있는 것이 누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동해를 접하고 있는 울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누정이 건립되었다. 대표적인 누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운정

관운정은 증직(贈職) 좌승지(左承旨)인 구암(龜岩) 황숙(黃塾)이 학문을 장려하고 벗을 사귀며 잔치를 하고자 건립하였다. 온정면 금천리 계곡 위에 세워져 있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충백(忠伯) 김세정(金世鼎)의 시와 참판(參判) 안연석(安鍊石)의 기(記)가 있다.

2. 남계정

남계정은 남계공(南溪公) 박광손(朴廣孫)이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 당시 화(禍)를 피해 울산(蔚山)에서 온정면 백암산(白巖山)아래로 이주하면서 건립하였다. 온정면 온정2리 153번지에 있다. 주로 시문(詩文)을 읊던 곳이었다. 오랜 세월로 정자가 허물어지니 1995년 10월 15일 후손들이 새로 개축(改築)하였다.

3. 대풍헌(待風軒)

대풍헌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건축물이다. 2005년 9월 20일 경상북도의 문화재자료 제1493호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3월 11일 경상북도의 기념물 제165호로 문화재 종별이 변경, 지정되었다.

대풍헌은 조선시대 구산포에서 울릉도로 가던 수토관이 순풍을 기다리며 머물렀던 건물이다. 이 건물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구산동사 중수기에 의하면 1851년(철종 2) 중수하고 대풍헌이란 현판을 걸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건물은 정면 4칸×측면 3칸의 일자형 팔작집으로 동해안 해변의 작은 포구 구산리 마을 중심부에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마을 주민들의 집회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풍헌은 조선시대 동해안 구산포에서 울릉도로 가는 수토관(搜討官)이 순풍(順風)을 기다리며 머물렀던 건물로 평면구성이나 일부 가구수법에서 특색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건물의 여러 부분이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조, 변형되어 있어 2010년 해체 복원하였다. 조선시대 울릉도를 관리하던 수토사들의 출발지라는 점에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대풍헌의 정면과 내부 마루에 걸린 현판 중 1910년 이전에 만들어진 12점의 현판을 말한다. 2012년 5월 14일 경상북도 유형 문화재 제441호로 지정되었다. 현판 목록은 「기성구산동사(箕城龜山洞舍)」 1점·「대풍헌(待風軒)」 1점, 「구산동사 중수기(邱山洞舍重修記)」 1점(1851), 「영세불망지판(永世不忘之板)」 6점(1870~1878), 「구산동사기(邱山洞舍記)」 1점(1888), 「동계 완문(洞楔完文)」 1점(1904), 「중수기(重修記)」 1점(1906)이다.

「기성구산동사」와 「대풍헌」 현판은 1851(철종2) 대풍헌을 중수하면서 건물 밖에 내걸었

던 현판으로 건물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구산동사 중수기」 현판에는 권성도(權成度) 외 네 명의 인물이 수토 임무를 봉행하기 위해 10여 칸을 중수하고 ‘대풍헌’이라 이름하여 현판을 걸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현판의 제작 시기는 1851년 6월이다.

「영세불망지판」은 모두 6점이 있는데, 파견된 수토사들이 구산동에 머물 때 마을 사람들에게 폐해가 있자, 마을에 물자를 지원해 주거나 마을 사람들을 위로해 준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남긴 것이다. 세부 목록을 보면, 「평해 군수 심능무 이윤흡 영세불망지판(平海郡守沈能武李琬翕永世不忘之板)」(1870), 「월송 만호 장원익 영세불망지판(越松萬戶張源翼永世不忘之板)」(1870), 「평해 군수 이용익 영세불망지판(平海郡守李容益永世不忘之板)」(1871), 「월송 영장 황공 영세불망지판(越松營將黃公 永世不忘之板)」(1869), 「전임 손주형 손말백 손익창 영세불망지판(銓任孫周衡孫沫栢孫益彰永世不忘之板)」(1878), 「도감 박억이 영세불망지판(都監朴億伊永世不忘之板)」(1878)이다. 「중수기」 현판은 1906년 대풍헌 중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계 완문」은 1904년 구산 동계를 인정해 줄 것을 관에 요청하는 내용과 그 청원에 의해 관에서 발급해 준 내용을 함께 새긴 것이다.

울진 대풍헌 현판 일괄은 조선 정부가 19세기에도 여전히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4. 독송정

독송정은 울진읍 고성리 청고동에 노송(老松)과 함께 세워져 있다. 독송정은 1550년(명종 5) 효자 주세창(朱世昌)이 창건하였다. 선조 때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관동안무사(關東按撫使)로 울진현을 순찰하던 중 독성정에 올라 시 한수를 지어 주씨 집안 사람에게 증(贈)하였다. 그 후 독성정이 허물어지자, 현령(縣令) 정필달(鄭必達)이 1671년(현종 12)에 석축으로 중건하였다. 오랜 세월로 퇴락되어 고성리 주씨 본가 오른편에 이건하였다. 그러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고, 그 자리에 유허비를 건립하였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시, 현령 정필달의 기(記)와 시가 있다.

5. 망북루

망북루는 1396년(태조 5)에 고산성(古山城)으로 이읍(移邑)하고 고산성 서문(西門) 위에 망북루를 세워 남서북(南西北) 세 곳을 관망하던 곳이다. 나중에 성읍(城邑)도 옥숙동(玉淑洞)으로 환읍(還邑)되고 세월이 오래되어 폐허가 되었다. 신점(申黈)의 시와 조준(趙浚)의 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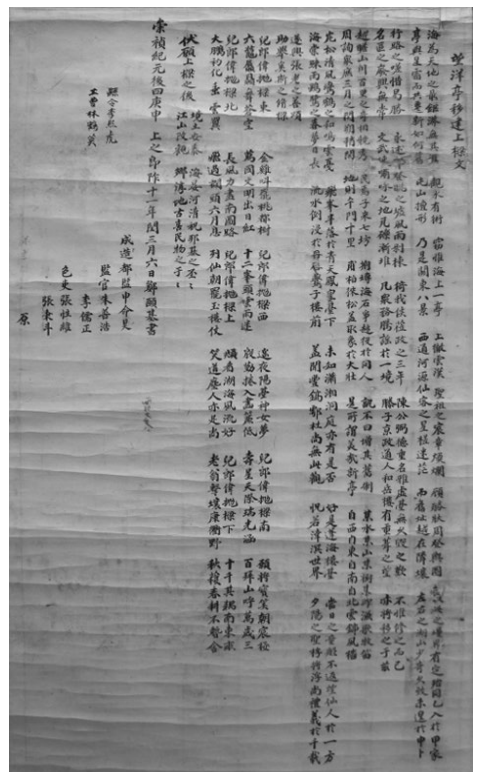
6. 망사정

망사정은 관찰사 박원종(朴元宗)이 창건하였다. 평해읍 남쪽 10리 밖인 등기산 관어대(觀魚臺)에 있었다. 현존하지 않지만, 현재 후포등대가 있는 곳이다. 근재(謹齋) 안축(安軸)의 시, 회정(晦亭) 전자수(田子壽)의 관어대(觀魚臺) 시가 남아 있다.

7. 망양정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구조의 정자이다. 고려시대에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해안가에 처음 세워졌으나 오랜 세월이 흘러 허물어졌으므로 1471년(성종 2) 평해군수 채신보(蔡申保)가 현종산(縣鍾山) 남쪽 기슭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1517년(중종 12) 거센 비바람에 파손된 것을 1518년 중수하였고, 1590년(선조 23) 평해군수 고경조(高敬祖)가 또 중수하였으나 허물어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1854년(철종 5) 울진 현령 신재원(申在元)이 이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여러 해 동안 재정을 마련하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다가 1858년(철종 9) 울진 현령 이희호(李熙虎)가 군승(郡承) 임학영(林鶴英)과 함께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웠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광복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주춧돌만 남은 것을 1959년 중건하였다. 장상훈이 주도하여 지역 인사들과 망양정 재건축을 추진하고, 1957년 6월 29일(丁酉: 己亥)에 개기제(開基祭)까지 봉행하며 백방으로 노력했다. 울진군 및 울진교육청에서 김용식·장성업·박승갑 등으로부터 목재를 기증받아 보수에 착수했다. 근남면 최중길의 설계 건축과 평해읍 손치후의 단청 지도로 장문희·이기형·손시회 등 4명이 참여해 단장했다.⁸³⁵ 다시 퇴락하여 2005년 기존 정자를 완전 해체, 새로 건립하였다.



<그림 168> 망양정이건상량문

835. 울진군, 2001, 앞 책, 578쪽; 장문희·이기형·손시회 등 4명이 망양정 단장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망양정 중수에 참여한 사람의 증언이다.

망양해수욕장 남쪽의 바닷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동해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다. 정자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관동팔경 가운데 으뜸이라 하여 조선 숙종이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라는 현판을 하사하였다. 또 정철(鄭澈)은 「관동별곡(關東別曲)」에서 망양정의 절경을 노래하였고, 숙종과 정조는 어제시(御製詩)를 지었으며, 정선(鄭敼)은 『관동명승첩(關東名勝帖)]』으로 화폭에 담는 등 많은 문인·화가들의 예술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8. 망월루

망월루는 울진현의 관사인 객사(客舍) 선사관의 남문루(南門樓)로, 현존하지 않는다. 현판은 영취(映翠) 주수(朱壽)의 글씨이다.

9. 망학루(望鶴樓)

망학루는 평해읍 평해리에 있었다. 구(舊) 평해군성(平海郡城) 남문루(南門樓)로서 2층 12칸으로 된 건물이었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10. 모원정

모원정은 온정면 소태2리 상소태(上蘇台)에 있다. 평해황씨(平海黃氏) 시조(始祖) 황낙(黃洛)의 업적을 현창(顯彰)하고자 종중(宗中)의 뜻을 모아 재각(齋閣)을 1906년 건립되었다. 양쪽에 방(房)이 있고 중간은 마루인데 모원정(慕遠亭)이라는 현판을 달았다. 선조(先祖)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재각(齋閣), 일가 노소가 모여 돈목(敦睦)을 강론(講論)할 수 있는 곳이고, 술을 마시고 풍월을 노래할 수 있는 누정(樓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자이다. 이 정자의 주위는 산이 높고 물이 많아 구름과 달, 고기와 새들이 한층 돋보이고, 이곳에 오면 이 정자의 대관(大觀)이 한 눈에 들어온다.

옛적에 소곡(蘇谷)과 해헌(懈軒) 같은 분들이 문장과 덕행으로 당대에 명망이 높았는데도 임천(林泉)에 깊이 숨어 우유(優遊)한 지조, 광일(曠逸)한 운치, 진속(塵俗)과 연(緣)을 멀리한 채 원학(猿鶴)과 벗을 하고, 초목도 향기를 풍겼다는 것은 이 정자의 고사(古事)이다.

11. 목란정

목란정은 울진읍 읍내 1리 옛 옥숙동(玉淑洞)에 있으며, 미파(眉坡) 남응대(南應大)가 그의 동생인 생원 목와(牧窩) 남응태(南應泰)와 더불어 강학하던 장소이다.

12. 몽선각

몽선각은 1790년(정조 14)에 판서(判書) 이병정(李秉鼎)이 올진현 현령으로 도임(到任)하여 관당(官堂)을 몽선각(夢仙閣)이라 편액(扁額)을 붙였다. 1895년에 일본인의 병화(兵火)로 불타 버렸다.

13. 백헌정

백헌정은 1590년(선조 23)에 진사(進士)였던 백헌(白軒) 남응량(南應亮)이 건립했으며, 온정면 소태1리 899-1에 있다. 남응량은 평해군 온정면 온계동(溫溪洞)에 입향하여 만년(晩年)에 집 옆에 작은 집을 짓고 백헌(白軒)이란 현판(懸板)을 달았다. 그리하여 서적(書籍)을 갖추고 자제들에게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지혜가 밝지 못하니 학문에 힘써라”고 훈계하고, 강학(講學)하였던 정자이다. 남응량은 영양남씨(英陽南氏) 계문(啓文)의 후손이며 남징(南澄)의 아들로, 이곳에서 풀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몸소 근검절약하며 덕(德)을 쌓는 데 힘썼다. 그 후 오랜 세월로 정자가 허물어져 후손들이 선생의 학덕(學德)을 기리고자 1940년 정월 5일에 정사(精舍) 3칸을 중수하고 또한 1984년에 다시 보수하였다.

14. 봉루정

봉루정은 평해읍 구 관사 북쪽에 있으며, 이곳에서 평해읍 소재지와 넓은 평야, 사방의 산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현존하지 않는다.

15. 사친정

사친정은 올진읍 읍내리 입수봉(入首峯)인 현 향교 뒷산의 망향대(望鄉臺)인 현 충훈탑 자리에 있었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16. 삼조어비각(三朝御批閣)

경상북도 올진군 매화면 금매리 몽천동 지담(池潭) 위에 있는 조선 후기 비각이다. 1774년(정조 19)에 몽천서원(蒙泉書院) 옆에 창건(創建)된 비각이다. 삼조어비(三朝御批)란 효종이 우암(憂菴) 윤시형(尹時衡)에게 내린 비지(批旨)와 숙종이 삼족당(三足堂) 윤여룡(尹如龍)에게 내린 비지, 그리고 정조가 황림(篁林) 윤사진(尹思進)에게 두 차례 내린 비지로, 원

본이 모두 분실되자 감사(監司) 윤사국(尹師國)이 ‘삼조어비’를 기리기 위해 목판에 친필로 ‘삼조어비지(三朝御批旨)’라고 쓴 현판을 기증하여 비각을 건립하고 현판을 걸었다.

그 후 1867년(고종 4)에 크게 보수하였으나 퇴락하자 윤씨 문중에서 다시 보수하였다. 1978년에 문중 내의 모금과 당시 군수 김용대의 군비 보조로 지금의 위치에 중수하였다. 비각은 정면 2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건물로, 지붕은 골기와로 맞배지붕을 이었다. 내부 평면은 통칸으로 마루를 깔았으며 전면에는 반칸 규모의 퇴칸을 설치하고 계자난간을 돌렸다. 비각 내의 유물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각 건축물은 근년에 중건한 건축물로서 문화재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소정

소정은 생원(生員) 남세원(南世元)이 건립했으며, 죽변면 후정4리 송정동(松亭洞)에 있었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18. 수월정

수월정은 승지(承旨) 황중윤(黃中允)이 관직을 쉬고 있을 때 수양을 위해 건립했다. 기성면 방울리 월야동에 있다. 황중윤은 산에 오르고 물가에 가고 정자에 오르면서 언제나 물과 달이 맑고 밝음을 즐겼다 한다. 황중윤(黃中允)의 시가 있다.

19. 연호정

연호정은 경상북도 울진군 연지리에 있는 정자이다. 울진읍 연지리에 있는 자연 호수인 연호의 북쪽 기슭 송림에 세워져 있다. 1815년(순조 15) 연호 북쪽 기슭에 정자를 세우고 향원정(香遠亭)이라 명명하였다. 그 후 향원정은 오랜 비바람으로 무너져 1922년 7월 당시 울진군수 이기원(李起遠)이 고을의 선비들과 함께 옛 동헌의 객사 건물을 옮겨 세우고 연호정이라 이름을 붙였다.

연호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 기와집이다. 익공양식의 정자로 지면에서 약 30cm 띄워 누마루를 깔고 주위에 평난간을 돌렸다. 1971년 울진군이 정자 일부를 보수하고 연호 주변을 정비하였으나 오랜 비바람에 시달려 정자는 낡고 연호는 무성한 갈대와 토사의 유입으로 황폐해졌다. 1990년 울진군에서 다시 정자를 보수하고 연호를 조성하는 등 주변을 정비하였다.

국내에서 가장 큰 연못으로 알려진 연호와 더불어 연호정 일대는 휴식 공간으로 변모하

였다. 많은 주민의 소풍지, 피서객의 휴양처로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2020년 연호정이 있는 연호공원 내 월연정과 어락교가 조성되었다. 연호정과 함께 울진군민에게 새로운 쉼터이자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 연희정

연희정은 원남면(현 매화면) 덕신리 옛날 역(驛) 원편에 위치하였다. 해기(海氣)가 희고 선명하며 주위의 경치가 절승(絶勝)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잔존하지 않고 가정(稼亭) 이곡(李穀)의 시(詩)만 남아 있다.

21. 영귀정

영귀정은 몽천이란 풍광(風光)을 배경으로 백여 인이 앉을 수 있는 상중하(上中下)의 대(臺) 셋을 만들고 대(臺) 사이에 종횡으로 물줄기를 끌어들여 흐르게 하여 술잔을 띄우도록 하였다. 이는 중국(中國) 산음(山陰)의 난정(蘭亭)을 모방하였다고 한다. 몽천은 산 밑에 샘이 솟기에 주역(周易)의 몽괘(蒙卦)인 산하출천(山下出泉)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몽천은 목련봉 아래 병풍처럼 둘러쳐진 측암석벽의 석혈(石穴) 속에서 샘이 솟아 청정(淸淨)한 못을 이루어 대한과 장마에도 수량(水量)의 증감을 볼 수 없고, 수온 또한 불변하여 겨울에는 따스하고 여름에는 서늘하며, 나라에 큰 일이나 괴변(怪變)이 있을 때마다 5일간이나 흐린 물이 솟아난다고 한다. 샘의 머리 돌 위에 수백 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단풍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그 주위에는 수천 그루의 무성한 숲이 돛자리처럼 아름답게 깔려 있다. 현령(縣令) 이행민(李行敏)의 시와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의 시가 있다.

22. 오월루

오월루는 구(舊) 평해군(平海郡) 객사 북쪽 언덕 위에 6칸으로 된 건물로 세워졌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안축(安軸)의 시, 정추(鄭樞)의 시, 김극일(金克一)의 시, 이병연(李秉淵)의 시 등이 있다.

23. 완재정

완재정은 1860년경에 국농(菊農) 최훈이 건립했으며, 금강송면 왕피리 포전마을에 있다. 최훈은 서식소(棲息所)로 활용했으며, 정자 주위에 향(香)나무 세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현

존하지 않는다.

24. 월송정

경북 울진군 평해읍(平海邑) 월송리(月松里)에 있는 정자이다. 신라시대의 화랑들(永 · 述 · 南石 · 安祥)이 이곳의 울창한 송림에서 달을 즐기며 선유(仙遊)하였다는 정자이다. 관동 8경(關東八景)의 하나로, ‘月松亭’이라고도 쓴다. 명승을 찾는 시인 · 묵객들이 하나같이 탄복한 곳이라고 한다. 정자는 고려시대에 이미 월송사(月松寺) 부근에 창건되었던 것을 조선 중기 연산군 때의 관찰사 박원종(朴元宗)이 중건(혹은, 그가 창건하였다고도 함)하였다고 하며, 오랜 세월이 퇴락한 것을 향인(鄉人)들이 다시 중건하였으나 한말에 일본군이 철거해버렸다. 1969년에 재일교포들이 정자를 신축하였으나 옛 모습과 같지 않아서 해체하고 1980년 7월에 현재의 정자(정면 5칸, 측면 3칸, 26평)로 복원하였으며, 현판은 최규하(崔圭夏)의 휘호로 되어 있다. 관동8경을 꼽을 경우, 월송정 대신 강원 통천군 흡곡(歙谷)에 있는 시중대(侍中臺)를 꼽는 이도 있다.

25. 인빈각

인빈각은 울진군 평해읍의 구 평해군 관아 객관 동대청(東大廳)이었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덕재(德齋) 신장(辛藏)의 시, 이달충(李達衷)의 시, 가정(稼亭) 이곡(李穀)의 시가 남아 있다.

26. 일우정

의관(議官) 장주신(張柱臣)이 세웠다. 일우정은 울진읍 호월1리 무월동 왜고개[瓦峴] 못 위에 있었다. 정자 아래로 남대천 맑은 물이 흐르고, 서쪽으로 단풍산, 북쪽의 고두박재, 동쪽 들판 위로 산성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절경을 이루며 시인·묵객이 찾아 드는 곳이었다. 면암(勉菴) 최선생(崔先生)의 일우정기(一愚亭記)가 있다.

27. 청암정

청암정은 근남면 구산리 구고동 청암폭포 위에 자리잡고 있다. 원남면(현 매화면) 매화 2리에 거주하던 만둔(晩遯) 윤상건(尹相健)의 장루지소(杖屨之所)이다. 윤상건의 동생 윤상일(尹相駟)이 형을 위해 건립하였다. 정자의 서쪽에는 송로봉(松老峰), 남쪽에는 칠성봉(七

星峰), 동쪽에는 향노봉(香爐峰)이 우뚝 솟아 있어 경관(景觀)이 매우 아름답다.

28. 청향각

청향각은 울진군 평해읍의 구 평해군 관아 객관 남쪽에 있었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29. 취운정

취운정은 1326년(충숙왕 13)에 존무사(存撫使) 박숙(朴淑)이 건립했다. 취운정은 『신증 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안축(安軸)의 기(記)에 의하면, “고을읍 남쪽 8리에 흰 모래가 평평한 독 위에 어린 소나무 수천 그루가 다복다복 사랑스럽다. 여기에 정자(亭子)를 지으면 그 운치(韻致)가 한송(寒松)·월송(越松) 두 정자와 서로 갑을(甲乙)이 될 것”이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정자의 입지조건이 뛰어났다. 안축(安軸)이 또한 취운정에 올라 “어린 소나무가 자라서 울울창창하여 그 맑고 그윽한 경치야말로 진세염열(塵世炎熱) 간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라”라는 시(詩)를 지었다. 지금은 폐허되었으며 근재(謹齋) 안축(安軸)의 시와 현령 팔송(八松) 정필달(鄭必達)의 시만 남아 있다.

30. 태고루

태고루는 조선 숙종 때 울진현 관사 태고헌(太古軒) 앞에 세워졌다. 건물은 2층 규모이며, 기둥은 둥근 잡목으로 만들어져 있다. 앞을 흐르는 긴 시냇물과 사방에 아름다운 넓은 들이 전개되어 경관이 아름다워 태고루(太古樓)라 하였다. 1916년 울진향교 명륜당(明倫堂) 앞에 이축(移築)해 교궁태화루(校宮太和樓)라고도 하였다. 태고루는 근·현대시 울진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었다. 구한말 울흥보통학교(蔚興普通學校)의 교사(校舍)로, 국권 강탈(國權強奪) 후에는 울진공립보통학교, 울진제동학교의 교사로, 해방 후에는 울진중학교의 교사로 사용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비행기 폭격으로 명륜당(明倫堂)과 함께 소실되었다.

31. 풍월루(風月樓)

풍월루는 구(舊) 평해군(平海郡) 객사 동북쪽에 건립되었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32. 하암정

하암정은 해헌(懈軒) 황명하(黃命河)가 건립했으며, 온정면 소태리 하암동에 있다. 만곡(晩谷) 조술도(趙述道)의 시(詩)가 있다.

33. 함벽정

함벽정은 1684년(숙종 10)에 울진현령으로 있던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이 창건하였다. 울진읍 읍내리 서쪽 현무암(玄武巖) 벽상(壁上)인 지금의 고파미(姑婆峯) 절벽 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잔존하지 않고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의 시(詩)만 남아 있다.

34. 호연정

호연정은 황명처사(皇明處士) 황식(黃湜)이 건립했으며, 평해읍 월송리 서안(西岸)에 있었다. 해은(海隱)의 시(詩)가 있다. 그 후 오랜 세월로 정자가 허물어져 후손들이 선생의 학덕(學德)을 기리고자 1940년 정월 5일에 정사(精舍) 3칸을 중수하고 또한 1984년에 다시 보수하였다.

35. 환월정

환월정은 당시 평해군의 객관(客館) 정문 동쪽에 있었다. 옛 이름은 남대청(南大廳)이었다. 정자 규모는 4칸으로 당시 군수 신유한(申維翰)이 개조하여 실당(室堂)으로 만들어, 난간에 의지해 서서 동쪽에서 뜨는 달을 바라보고 즐겨워했다고 하여 환월정이라 불렀다.

제3절 추모 공간 : 분묘와 사당

1. 사당

울진 지역의 사당에는 몽천사(蒙泉祠), 경무사(景武祠), 봉림사(鳳林祠), 향현사(鄉賢祠), 도통사(道統祠), 신곡영당(薪谷影堂), 구장사(龜藏祠), 경문사(景文祠), 경충사(景忠祠), 몽양사(蒙養祠), 격암선생별묘(格菴先生別廟), 강면사(江棉祠), 아산영당(鵝山影堂), 향현사